

비경 쫓아 비경에 오른 소산... 한국화의 세계화 이끌다



소산 박대성 화백이 19일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이세경의 속깊은 인터뷰

소산 박대성 화백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에게 '소산(小山)'이라는 아호를 지어주었다. 6·25 전쟁 중에 부모를 여의고, 왼쪽 팔 마저 잃은 손자는 그 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대산(大山)'이 아니고 소산이냐며 불만을 토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말했다. "세상에 작은 산이 어데 있노."
 소산의 큰 뜻을 가슴에 품은 아이는, 한국 수묵화의 거장으로 자라났다. 10m가 넘는 거대한 화폭에 금수강산 곳곳의 아름다움을 담는다. 오른손 만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을 쓰는 고된 작업이다. 하루하루를 수행하듯 이 땅의 풍경을, 그 안에 뿌리내린 숭고한 정신을 담아낸다.
 더 큰 절경을 찾아 히말라야를 오르고, 실�크로드를 횡단했지만 어느 곳도 소산의 비경에 견줄 수 없었다. 미국으로 떠나 화려한 기교와 색감의 현대미술을 접했지만 먹과 붓을 놓을 수 없었다. 팔십 평생 전통을 고수한 그의 수묵화는 2년 전 국경을 넘어 독일, 이탈리아, 미국 동·서부를 순회했다. 관객들은 처음 마주한 거장의 대형 산수화 앞에 유독 긴 시간 머물렀고, 전시 일정은 두 달이나 연장됐다. 컷대 높은 미국과 유럽 미술계가 연일 찬사를 쏟아내며 정통 한국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알렸다.
 소산 박대성 화백의 해외 순회 기념전 '소산비경'이 열린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를 찾았다. 'Sublime Beauty of Sosan(소산의 숭고한 아름다움)'이라는 영어 제목이 눈에 띄었다.
 박 화백은 자신의 작품 '삼릉비경' 앞에 서 있었다. 해외 미술 현장에서 찬사를 받고 '금의환향'한 대작이다. 작품 속 보름달을 등진 그의 모습에서 먹줄 가득 머금은, 고고한 붓의 형상이 떠올랐다.

- 어떻게 그림을 시작했다.
 "운명이었다. 신체적인 장애도 있었고 다른 것으로 먹고 살 수도 없었다. 여섯 살 때 붓을 잡은 이후 한 번도 그만 두겠다 생각한 적이 없다. 중학교 1~2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그 이후로는 등교도 거부했다. 원하지 않는 공부하기 싫었고, 몸이 불편해 자존심도 상했다. 그 이후 온전히 그림에만 몰두했다."
 - 한 손 만으로 그리는 게 힘이 들지는 않았나.
 "나는 (이 장애를) 축복이라 생각한다. 고난은 정신세계 가장 위에 있다. 모든 정신은 고난을 이기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더 큰 장애를 이기고 블랙홀을 입증해내지 않았나. 현실 사회는 장애를 불행으로 여기지만 나는 이 불편함을 극복하며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
 - 크기가 큰 작품이 많은 이유가 있다.
 "어찌 보면 '소산'의 열등감을 풀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동양 미술사를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새롭게 도전을 해보는 것이다.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건 피나는 노력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 해외 관객들이 대형 산수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일평생 '보이지 않는 뿌리'를 찾아왔다. 사람은 본디 어디서 태어나 어디에 뿌리박고 살았는지 중요하다. 이만큼 살아보니 무엇을 소유했는가 보다 무엇을 지향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들은 그림을 통해 그 진정성을 느낀 것이다."

6살에 붓 잡아, 운명적으로 그림에 몰두 신체적 장애 극복하며 고난 이겨내 거대한 화폭에 금수강산 절경 담아

박 화백은 오랜 기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중국 북경, 계림, 연변 등지를 돌았고, 여러 차례 히말라야와 실�크로드를 방문하며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접했다. 1994년에는 한국화의 현대화라는 꿈을 품고 뉴욕으로 건너가 현란한 현대미술의 한복판인 소호(Soho)에서 1년을 살았다. 하지만 1년만에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찾은 곳이 지금도 그의 작업실이 있는 경상북도 경주였다.
 -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왔나.
 "어색하게 내 작품을 서구화하고 싶지 않았다. 수 없이 해외를 다니며 세계 곳곳의 예

술을 탐구하다 보니 비로소 내가 갈 길이 보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현대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그 중에서도 경주를 택한 이유가 있다.
 "가장 한국적인 곳을 찾다가 불국사가 문득 떠올랐다. 무작정 찾아가 스님께 1년 동안 불국사를 그려야겠으니 방을 달라 했다. 그 방에서 먹고 자면서 1년 내내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불국설경'이다."

세계여행하며 새로운 풍경·문화 접해 가장 한국적인 것 현대화하고자 귀국 한국화, 기술·정신 통일 필요한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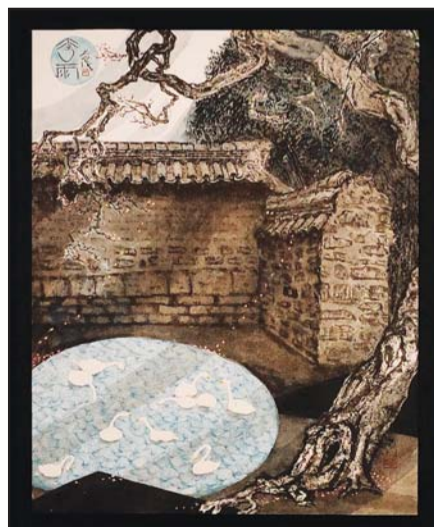
- 히말라야, 실�크로드에서 한국보다 더한 절경을 만나지 않았나.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금수강산에 백화가 만발하다'는 표현을 했다. 처음에는 나도 선조들의 과장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젠가 백두산의 봄을 찾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버스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을 때, 해가 누엣누엣했다.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꽃들이 카펫처럼 피어 있었다. 지천에 핀 수백 가지 꽃을 차마 밟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백화만발, 금수강산이란 표현을 온 몸으로 느꼈다. 그 위대한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완성한 '불국설경'은 그의 출세작이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기작이다. 눈이 가득 쌓인 불국사의 절경이 가로 8m에 달하는 거대한 화폭에 담겨있다. 하지만 그는 이 작품에서 한번도 눈을 그린 적이 없다. 하얀 화선지의 여백 그대로 눈이 뻗기 때문이다. 그리지 않고 그리는 것. 그가 말하는 한국 미술의 위대한 '술(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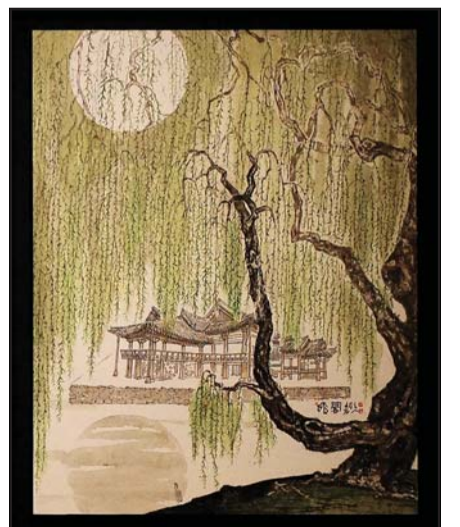
- 한국화가 왜 특별한가.
 "화선지를 바다에 깔고 붓을 드는 순간, 온 정신이 붓 끝에 모인다. 종이 위에 한 번 번진 먹은 지울 수도, 고쳐 그릴 수도 없다. 몇 번이고 몇 칠이 가능한 서양화와는 달리 붓질 한번에 철저한 기술과 정신 통일이 필요하다. 아름다움(美)뿐 아니라 기술(術)이 필요한 진짜 미술이다. 서양화는 화면을 가득 채워야 하지만 동양화는 여백의 미가 있다. 필요 없는 것은 그리지 않는다. 그리는 행위보다 정신적인 '수행'에 가깝다."



'백록담'



'화우'



'류각'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日,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400억 원 이상 원조 /사진 뉴시스
 ▲中·필리핀, 다시 '해상장벽' 공방...남중국해 갈등 지속

▲홍콩 증시, 반등 개장 후 지분조정 매도에 하락...H주 0.79% ↓
 ▲올해 브렉시트 후 첫 유럽의회 선거... "EU 정책변화 적극 대응"



▲中, 데이터보안법·반간첩법에 기밀법도 강화...내달 개정안 통과될 예정
 ▲日후쿠시마원전 부지 내 원인 미상 수증기... "화재는 아냐" /사진 뉴시스